
국어 생활의 든든한 길라잡이

이경우 · 한국어문기자협회장 · 서울신문 기자

어렵다. 흔히 이런 말을 듣는다. 우리가 사용하는 국어를 놓고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여기에는 편하고 자유롭게 말하고 쓰고 싶은 속내도 있다. 지켜야 할 규범에 대한 저항도 들어 있다. 그래서 《새국어생활》은 대중화를 내세웠다. 지난 20년 동안 국어 관련 지식을 대중화해 국어에 대한 일반의 관심을 높이는 데 힘썼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우리 사회에서 국어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국어와 관련한 언론 매체의 기사, 프로그램이 늘어났고, 책들이 무수히 쏟아져 나왔다.

그래도 아직 갈 길은 먼 듯하다. 최근 한 조사에서 대학생 10명 가운데 9명이 우리말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답했다. '맞춤법이 가장 어렵다'고 했고, '적절한 어휘', '어법 및 문법', '정확한 발음', '높임말' 순으로 응답했다.

대중화의 핵심은 소통이다. 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더 필요해 보인다. 이 과정에서 언론 매체나 시중에 나온 책들이 잘못 전달하는 정보도 짚어 줬으면 좋겠다. 그릇된 정보는 국어를 혼란스럽게 한다.

사전은 언어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그러나 정작 사전에 대한 이해는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사전을 중요한 참고 서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 이상의 무엇으로 여긴다. 그러다 보면 경직된 국어를
놓게 된다. 사전이 제대로 이해되도록 하는 노력을 더 해 줬으면 한다.

《새국어생활》은 그동안 국어에 관해 가장 신뢰 있고 앞서가는 정보
를 제공해 왔다. 전문가와 일반의 다리 구실을 했다. 국어를 통해 삶을 이
야기했고, 우리 문화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데 큰 기여를 했다. 창간 20
주년을 맞아 더욱 새롭게 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피부에 와 닿고 깊
이 있는 특집들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